## 남원축협 등, 한우의 날 남원시에 한우 불고기 전달

남원시는 남원축협과 전국한우협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신춘호)에서 11월 1일 한우의 날을 기해 800만원 상당 한우 양념불고기 225kg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지부와 남원축협은 매년 한우의 날에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추진해 왔으며, 이 성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이 고품질의 한우를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한우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식문화를 이끌어 왔다.

신춘호 지부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한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매년 기부해 주시는 한우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양질의 한우를 드시고 건강한 가을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제 광활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고추장 나눔

광활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안숙) 회원들은 지난달 31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추와 찹쌀 등으로 고추장을 500여 통 담아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김안숙 회장은 "매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찹쌀나눔과 김장, 고추장 등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사랑의 손길을 전해 기쁘다"고 전했다.

광활농협 임영용조합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농주모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뜻깊은 행사를 매년 추진하는 광활농협 농주모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이날 행사에 서울가락동농수산물시장 내 ㈜중앙청과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 농협 무주군지부 등, LX 무주지사와 농촌일손돕기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전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김인순)는 지난 1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지사장 이형삼)와 함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무주군 무주읍 소재)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콩잎따기 및 주변 환경정리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범석 지부장은 "농촌일손돕기에 함께해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와 농협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구천동농협, '쌀 소비 촉진 캠페인' 3차 실시

지난달 31일, 구천동농협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진행 된 골골숏숏 찾아가는 산골극장을 방문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백설기 떡을 나눠주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은 우리 쌀 소비를 촉진, 쌀밥에 대한 관심 제고와 쌀밥문화 식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지난 캠페인에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관심과 아침밥을 챙겨먹는 습관을 다시금 장려하며, 나아가 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화훼산업 발전 · 소상공인 후학 양성'

### 군산시 명장 라복임,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달 31일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군산시 명장 라복임(라복임플로체 대표)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로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한다.

본 대회에서 라복임 대표는 지역축제 참여 등을 통한 화훼문화 발전과 소상공인 후학 양성 등의 공을 인정받아 모범 소상공인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은 라복임씨를 포함해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 22명이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2023년 군산시 화훼 장식 명장'으로 선정된 라복임 대표는 32년간 화훼 분야에 종사하면서 꽃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단순히 꽃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화훼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산업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군산 시간여행축제와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도 꽃꽂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사람들이 화훼문화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역 내에서는 전시회와 강연을 개최, 화훼 매거진과 교재 등을 꾸준히 출간함으로써 화훼산업을 알리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라복임씨는 화훼산업의 발전과 계승을 위하여 그린스미스 플라워스쿨학원에서 국가자격증 및 원예치료 지도사, 독일플로리스트, 창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소상공인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아울러 해외 국제교류전시회에 다수의 작품을 출품하고, 독일, 미국 등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 화훼 디자이너와 교류하고 선진 기술을 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전문가를 양성하며 국가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전주대 인권센터, 대학 인권센터 교류 협력 워크숍 공동 개최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1일 2024년 대학 인권센터 교류 협력 강화 워크숍(호남·제주권역)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주대를 비롯해 군산대, 광주교대, 제주대 등 호남?제주권역 19개 대학 인권센터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학 인권센터 전문 경력자의 운영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대학 인권센터 지역별 경험 공유 △호남제주권역 대학 인권센터 네트워킹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전문가 멘토링에서는 전주대 인권센터 김미라 연구교수, 전북대 인권센터 백민혁 조사상담관, 전남대 인권센터 양주애 전문경력관, 제주대 인권센터 김성철 팀장이 권역별 멘토로 선정돼 모둠별 질의답변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로 참여한 인권센터 김미라 연구교수는 "각 대학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며, 다른 대학 실무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김인규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호남·제주권역의 대학 인권센터 실무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를 통해 대학 내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남원 도통동, 어르신 휴대전화 안전벨트 사업 추진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70세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동장 6대 핵심과제인 공통 우수시책으로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과 연계, '어르신 휴대전화 -안전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휴대폰 뒷면에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사업이자 응급상황 및 신변보호에 취약한 대상자의 일상활용 및 위기상황 시 신속한 연락 대처에 도움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도통동에서는 1일1가구 방문을 통해 10월말 현재 789명의 동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이 사업으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김기두 기자

## 농협 남원시지부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은 지난달 31일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재능기부사업(이하 사회봉사) 일환으로 남원 관내 취약계층 3가구의 도배, 장판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사회봉사자 분야별 특기·재능을 활용하여 농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남원보호관찰소는 매년 취약농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덕과면 하모(88세)어르신은 "평소 생활이 불편한데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새롭게 도배, 장판을 교체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남원 =김기두 기자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어르신들과 문화탐방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은 지난달 31일, 충남 보령시 일원에서 어르신 자원봉사자 26명이 참여하여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문화탐방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장수군의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문하여 커피, 원예나눔활동, 지역행사 공연 봉사활동, 식당 배식봉사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활동들에 참여한 분들이다.

올 한해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준 어르신들을 지지해 드리고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높이고자 문화탐방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여한 어르신들은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여행도 가게 되니 부끄럽네요", "오히려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 =고판호 기자

##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정읍산림조합과 협약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는 지난달 31일 정읍산림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 및 산림문화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정읍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정읍산림조합 최봉관 조합장과 전주대 김병오 미네르바학부장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치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산림문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학생의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이다.

협약식에 앞서 최봉관 조합장은 '산림조합의 도전, 혁신,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학생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최봉관 조합장은 "미네르바학부 학생들이 치유산업과 산림문화 혁신의 인재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오 미네르바학부장은 "우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정읍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지산학 협동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진안제일고와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1일 진안제일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김현식 미래모빌리티학과장과 진안제일고등학교 최대원 교장, 이동현 교감, 현동규 교무부장, 김세린 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자율형 공립고 2.0 활성화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 발전 전략 수립 △전주비전대학교 시설 및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진안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 및 진로 탐색 지원 △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풀 제공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연수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비전대는 미래모빌리티학과 등 관련 학과에서 진안제일고의 자율주행 관련 교과목 및 강사인력 지원과 실습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병훈 총장은 "진안제일고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교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원 교장은 "전주비전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교육 발전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본교 학생들이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2024년 유학생 체육대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1일 대운동장에서 '국경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4학년도 유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시대를 이끌어 갈 전 세계 청년들에게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통나무 피하기, 비전탑 쌓기, 지구를 들어라 등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유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단체 티셔츠도 배부했다. 또한 유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간에서 후원한 다양한 경품으로 행운권 추첨 행사도 가졌다.

이효숙 국제교류원장은 "타국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미얀마 유학생 산부리는 "학업, 알바 등으로 짜여진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